



나쁜국어 독해기술

| 진형석 지음 |

쏘티북스



왜 국어 독해력인가? • 8

(첫째 마당) 문장 독해

Prologue “왜 문장 독해부터 시작해야 할까?” • 18

Act 01 주어-서술어 찾기 • 22

Act 02 필수 문장 요소 찾기 • 26

Act 03 문장 속 문장 분해하기 • 30

Act 04 문장끼리 연결되어 있는 문장 분해하기 • 35

Act 05 실전적 문장 해부 • 42

비판적 독해 입문 • 50

(둘째 마당) 단락 독해

Prologue “한 단락에는 하나의 내용이 있다!” • 54

Act 01 핵심어 찾기 • 56

Act 02 내용 전개의 흐름 짚기 • 64

Act 03 일반적-구체적 전개 • 74

Act 04 의문-해결 전개 • 84

Act 05 원인-결과 전개 • 94

Act 06 반박-주장 전개 • 103

Act 07 나열식 전개 • 113

(셋째 마당) 글 독해

Prologue “글의 성격에 따라 읽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 • 126

Act 01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 (1): 맥락 제사-글쓴이의 생각 • 130

Act 02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 (2): 다른 의견 소개-글쓴이의 반박 • 145

Act 03 글쓴이가 설명에만 주력하는 글 (1): 개념 나열식 전개 •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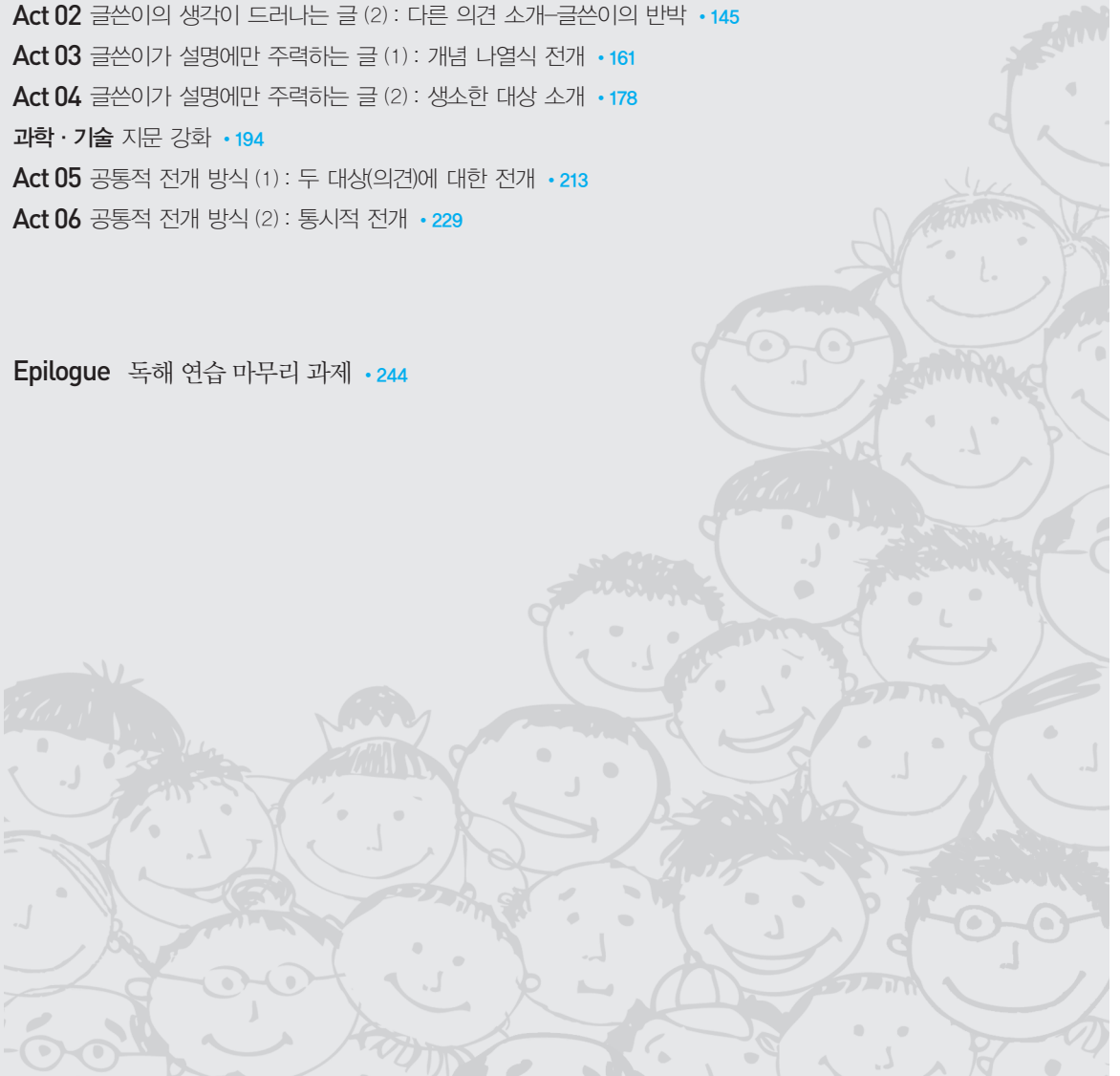
Act 04 글쓴이가 설명에만 주력하는 글 (2): 생소한 대상 소개 • 178

과학·기술 지문 강화 • 194

Act 05 공통적 전개 방식 (1): 두 대상(의견)에 대한 전개 • 213

Act 06 공통적 전개 방식 (2): 통시적 전개 • 229

Epilogue 독해 연습 마무리 과제 • 244



왜 국 어 독 해 력 인 가 ?

01 스텝1 과정 소개

스텝1 과정	〈수학영역〉 기본 개념 및 공식 이해 · 암기	〈영어영역〉 기본 단어 및 문장 독해를 위한 문법 익히기	〈국어영역〉 시험을 위한 독해 능력 향상 및 문제 풀이 사고력 배양
↓			
스텝2 과정	기출문제 분석 및 응용문제 풀이를 통한 개념 이해 및 적용	①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 독해 및 문제풀이 능력 배양 ② 문법성 판단 문제를 위한 문법 지식	① 기출문제 분석 및 응용문제 풀이를 통한 사고의 구조화 · 이해의 암기 ② 문학 공부 및 기타의 영역 다루기
↓			
스텝3 과정	오직 시험장만을 위한 실전 문제 연습과 부족한 부분의 계획적 보충		

많은 학생들이 국어영역은 **스텝1** 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수학영역과 영어영역은 위와 같은 순서에 따라 기본적인 내용부터 공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영역을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문제만 풀거나 기출 분석을 한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EBS 교재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에는 심지어 내신 시험을 준비하듯이 EBS 교재를 암기하는 학생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능 및 평가원 모의시험에서 많은 학생들은 초등학교도 알고 있을 〈토끼전〉, 〈흥부전〉 등에 대한 문제도 쉽게 풀지 못했습니다. 왜 줄거리를 알고 있는데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일까요? EBS 교재를 암기해서 어떤 작품을 알기만 하면 문제가 풀리는 것일까요? 약간 유리하기는 해도 그것은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어영역 공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지문이나 작품이 나오더

라도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며 EBS 교재 등을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수학이나 영어에 투자하는 것이 수험 전략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공부를 위한 **스텝1**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기능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학영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인수분해 기본 공식도 모르고 있거나 영어영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기초 단어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국어영역은 많은 학생이 기본을 모르는 상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해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문제만 다룬다면 **스텝1** 과정 없이 **스텝2** 과정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 수학 공식도 모르는 친구가 수학영역 기출문제만 풀고 있다면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공부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하느라 시간만 투자하고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 국어영역에 대한 독특한 유언비어들이 학생들 사이에 떠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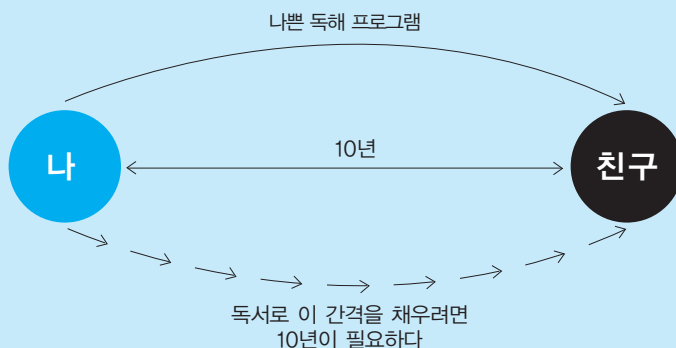
- 국어는 공부해도 점수 안 오른다.
- 국어는 공부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
- 국어 실력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 어려서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유언비어들을 비웃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02 소홀했던 10년을 뒤집는 나쁜 독해 프로그램

국어영역의 **스텝1** 과정은 ‘시험을 위한 독해 능력 향상 및 문제 풀이 사고력 배양’입니다.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 독해력을 기른 다음, 문제를 다루면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은 독해 능력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독서에 소홀했고, 이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독서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고 있으니 독서할 기회가 예전보다 없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 지도를 받거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양극화되어 최소한의 독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독해력과 논리력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실제 수험생 커뮤니티를 보면 그런 점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심오한 그 무엇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장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국어영역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이 목표라면 10년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10년의 차이를 날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총체적인 독해력 차원에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문제를 풀기 위한 독해력 차원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이런 독해력 훈련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간혹 독해력 향상을 위해 이상한 사회학 서적을 읽거나 신문사설을 정리하는 친구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독서를 하면 10년의 차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수학,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잠깐 짬을 내서 억지로 읽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 식의 공부는 영어영역 점수를 올리고자 미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잠깐 다녀오면 영어 점수가 오를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에 가서 몇 년은 살다 와야 영어영역 점수가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영어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외국에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어영역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독해 연습을 통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어 실력은 차이가 나더라도, 다섯 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 방식인 수능에서는 영어 능통자와 점수 차이 나지 않는 수준까지 금방 이를 수 있습니다.(오히려 문제 푸는 것은 영어 능통자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어영역에서 독해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1) 전혀 없었거나 2) 수능영어를 대비한다고 미국에 가거나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과정을 바로잡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10년 걸릴 일을 짧게 끝내면 10년 노력한 사람들이 보기에 '나쁘다', '억울하다' 라고 해서 '나쁜' 국어 독해라고 합니다.(아마도 이 책 이름이 왜 '나쁜국어 독해기술' 인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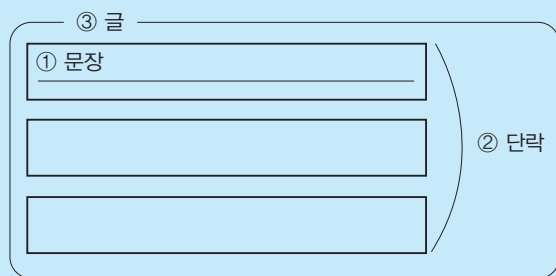
① 정 확 하 면 서 도 빠 른 독 해

국어영역 시험을 보는 것은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할 뿐, 지문을 읽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함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안타까웠던 점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지문을 대강 보고 답만 찍는 풀이’라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단히 오해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독해력 바탕 위에서 문제 풀이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지문을 읽는 것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독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독해 훈련을 먼저 해야 이후 문제 풀이 연습을 할 때 정확하고 빠른 지문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국어영역 학습서는 이러한 지문 분석 연습을 다루지 않거나 짧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다른 책, <국정보 ; 국어영역 네 눈에 정답만 보이게 해줄게>도 **스텝2** 과정을 연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문 독해는 간단히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간단하게 독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연습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실전처럼 간단하게 연습해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농구 선수들은 시합을 하며 공을 쉽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림 안에 공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농구 선수라도 처음 연습할 때 지루하게 수없이 많은 공을 던지는 노력이 있었기에 실제 시합에서 쉽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국어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부분부터 노력하여 실제 시합, 즉 수능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독해 연습 네비게이션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 단락, 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모여서 단락이 되고 단락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됩니다. 그렇다면 글을 읽는 것은 어떤 순서로 연습해야 할까요? 문장과 단락으로 조립된 글을 읽기 위해서는 거꾸로 해체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기 위해서는 단락 간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단락이라는 것을 파악하려면 그 단락을 구성하는 각 문장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로 얹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부는 ① 문장 ② 단락 ③ 글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신경 쓰며 공부해야 합니다.

① 문장	② 단락	③ 글
기초적인 문장 공부를 통해서 길고 복잡한 문장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단락의 전개 방식을 익히고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글의 전개 방식을 익히고 각 단락별 관계를 구조도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글 전체를 한눈에 보도록 한다.



“정확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정확하지만 신속한 독해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모순적인 요구입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천천히 정독해야 하고, 신속하게 읽으려면 주마간산(走馬看山 :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볼 틈도 없이 대강대강 훑어봄) 식으로 독해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③ 정 확 한 연 습 을 위 한 제 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일단 능력이 생기면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령 ‘자전거 타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처음 자전거 타기를 배울 때는 분명 넘어지고 다치는 등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려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손을 놓고 탈 수도 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체득하게 된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탈 수 있게 되면 수년 간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도, 어느 날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제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은 10, 20, 30 이렇게 순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10에서 100으로 한 번에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벽을 넘는 것과 같은데, 그 이전에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다가도, 일단 할 수 있게 되면 ‘대체 내가 왜 이것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 자전거 타기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 그들도 조금만 더 연습하면 어느 순간 할 수 있는데…….’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어영역도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을 암기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독해와 문제 풀이를 습관처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국어는 수학, 사회, 과학처럼 어떤 일정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교과 지식을 아는지 물어보

는 과목을 ‘지식 축적형 과목’이라 합니다. 지식 축적형 과목은 10, 20, 30 이런 식으로 실력이 늘게 되는데, 가령 log 공식 하나를 알면 거기에 해당하는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영역은 앞서 말한 자전거 타기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운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벽을 넘을 때까지 연습하며 계속 고민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국어영역 공부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형별 이해라든지 다양한 풀이 비법들은 이러한 능력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혼자 타지도 못하는데 커브를 도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본 능력을 우선적으로 기르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접하면서 나머지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점수가 제자리인 이유는, 대개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소홀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이 책을 보기 이전에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확한 공부를 위해 먼저 체크할 내용

책을 내고 난 뒤에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거나, 해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이전에 ‘국어정보원’ 홈페이지 followright.com에 들어오셔서 이에 대한 사항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부방법론 및 이 책과 관련한 보충문제 등도 올려두었으니 유용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Act 02

필수 문장 요소 찾기

독해기술 02 |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필수 요소를 통해 완결된 문장 형태로 이해한다.

앞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는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완벽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철수는 천재다.’는 완벽하게 성립되는 문장이지만 ‘철수는 먹는다.’와 같은 문장은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수가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 ‘내 친구 철수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와 같은 문장은 그 필수 요소만을 추려 보면 ‘철수는 옷을 입는다.’가 되는데 이처럼 필수 요소 이외의 불필요한 문장 요소들을 제거하여 중요한 의미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문장 요소를 찾는 동시에, 불필요한 문장 요소들은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봅시다.

콜린 렌프류는 서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여러 거석 무덤에 근거하여 이 주설이나 전파설 대신 자생설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연습한 대로 하면 서술어는 ‘주장하였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장하였나?’라는 질문을 통해 주어 ‘콜린 렌프류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을 붙여 놓으면 ‘콜린 렌프류는 주장하였다.’가 되어서 무엇인가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장하였다’라는 서술어가 원칙적으로 ‘누가(주어) 무엇을(필수 요소)’이라는 요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된 것을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는데, 문법에서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어를 찾아 ‘누가’는 만족시켰지만 ‘무엇을’이라는 항목은 만족시키지 못해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콜린 렌프류는 서유럽에서 새롭게 발굴된 신석기 시대의 여러 거석 무덤에 근거하여 이
 주술이나 전파설 대신 자생설을 주장하였다.
 누가 무엇을 하였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자생설’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면 ‘콜린 렌프류는 자생설을 주장하였다.’가 되어 그 자체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서유럽에서 새롭게~전파설 대신’ 역시 중요한 문장 요소이지만 필수 요소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필수 문장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그 외의 요소들은 부가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독해 Tip

- 앞에서 배운 것처럼 서술어를 통해 주어를 찾았어도 문장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필수 문장 요소가 빠진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필수 요소를 찾아 완벽한 문장을 구성해야 하는데, 연습의 과정에서는 어떤 형태의 필수 요소가 들어갈지 문장에서 찾기보다는, 일단 스스로 추측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제 | 독해연습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필수 요소를 찾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체주의적 지배가 대중의 일상을 철저히 종속시켰던 나치 시대에 관한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는 하우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 | | |
|-------------|--------------------|
| ① 나치 시대에 관한 | ②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는 |
| ③ 하우젠의 관점을 | ④ 뒷받침한다 |

| 예제풀이 |

답은 ③입니다. 먼저 서술어를 찾으면 ‘뒷받침한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또는 무엇이) 뒷받침하는지 생각해 보면 주어는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와 서술어를 붙여 보면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는 뒷받침한다.’가 되어서 ‘무엇을?’이라는 의문을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하겠지요?

전체주의적 지배가 대중의 일상을 철저히 종속시켰던 나치 시대에 관한 여러 일상사가들의 연구 결과는 하우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무엇을 한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하우젠의 관점’이 됩니다. 이것을 ‘목적어’라고 하지만, 독해 과정에서는 정확히 문장의 의미를 파악했느냐가 문제이지 문법적인 명칭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 이외의 필수 요소를 찾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01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업계는 설탕의 대체재로 액상과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① 설탕의 대체재로
- ②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 ③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 ④ 액상과당에 관심을 갖기

02

이들은 과거에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지만, 지금은 무대 위에서 연기자이자 사건의 관망자가 된다.

- ① 지금은 무대 위에서
- ②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지만
- ③ 연기자이자 사건의 관망자가
- ④ 과거에는

03

그는 자신이 수행한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힘의 전달 방식으로 역선(力線)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① 역선(力線)의 개념을
- ② 새로운 힘의 전달 방식으로
- ③ 이해하기 위해
- ④ 자신이 수행한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04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되었다.

- ①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 ②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 ③ 핵분열 에너지가
- ④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는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 ②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
- ④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는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실전풀이

01 답 ④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설탕의 과다 섭취로 인한 유해성이 부각되면서 식품업계는 설탕의 대
주어
체제로 액상과당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필수 요소 서술어

02 답 ③

이들은 과거에는 그 사건을 직접 체험했지만, 지금은 무대 위에서 연기자이자 사건의 관망자가 된다.
주어 필수 요소 서술어

03 답 ①

그는 자신이 수행한 실험에서 발견한 전자기적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힘의 전달 방식으
주어
로 역선(力線)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필수 요소 서술어

04 답 ②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
주어 필수 요소
지원으로 생각되었다.
서술어

05 답 ①

저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관리한다.’는 ‘국립’의 뜻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공원 내 케이블
주어 필수 요소
카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술어

Act 05

공통적 전개 방식(1) : 두 대상(의견)에 대한 전개

- 독해기술 17** | • 두 대상(의견)에 대한 비교 · 대조라면 어떤 점이 견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단순히 두 대상(의견)을 나열한다면 왜 나열하는지, 어떤 점이 특징인지 확인한다.
•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더 좋아하는지 확인한다.

두 대상이라 하여 반드시 독립된 두 개체가 등장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대상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진 두 가지 특성이 있고, 그것을 비교 · 대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대상이 나온다고 하여 모두 비교 · 대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대상을 비교 · 대조하지 않고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두 대상을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설명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고 그것들의 유사점, 차이점을 확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두 대상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비교 · 대조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글이라면, 특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비교 · 대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유사점을, ‘대조’는 차이점을 견주는 것이지만, 수능 문제에서는 둘 다 모두 ‘비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조’를 ‘비교’라고 설명했다고 틀린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난 경우에는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글쓴이가 여러 의견 중 어떤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힘을 실어 주는 의견 없이, 단순히 여러 의견을 소개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독해 Tip

- 두 대상에 대한 비교인지 대조인지 또는 단순한 나열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라면, 글쓴이가 여러 가지 의견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01~0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락1 사람들은 언어로 무엇을 표현하는가? 언어의 내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는 이성 또는 지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 또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고 체계화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성과 지성의 언어이고,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 또는 서정적인 분위기나 정신적인 상태에 관하여 느끼고 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정서와 감각의 언어이다. 이 두 요소는 우리의 언어적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연마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에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요소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대립의 개념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며, 두 요소 모두 인격과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단락2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결국은 언어적 지성이다. 우리들의 사고와 개념은 언어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의 덕분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의 지성은 언어로 강제당한 지성이다. 우리들은 모국어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간다. 참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물결치면서 흘러가고 밀려오는 현대는 과거에 한번 안 지식으로 몇 년을 사용하는 능력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할 폭도 넓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남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느끼는 지성과 정서가 무엇인지도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단락3 올바른 이성의 언어, 지성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주는 단정하다.”라고 했을 때, 동주는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일도 없고, 교복의 단추를 비스듬히 다는 일도 없고, 양복바지의 무릎이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음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둘째는, 편협한 사고를 넓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나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고, 내 생각의 한계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곧 현상을 따져보고 다시 물어보고 정리하고 비평하기,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깊고 넓게 사고하는 것이 지성적 언어 사용의 바탕이 된다.

단락4 바람직한 이성적인 사고는 그에 걸맞은 정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바람직한 정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정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정서란 인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성장에 정서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즉 아이들 교육에 정서 교육이 빠진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결함을 안게 될 것이다.

단락5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는 그 경향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의 절묘한 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지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감성적 지성인의 모습을 꿈꾸게 된다. 이는 글로 쓸 때뿐만이 아니라,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편견, 선입견, 고정 관념 등이 없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면서도, 따뜻함이 살아 있는 풍부한 감정 표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목표이자 이상일 것이다.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

- ㄱ. 예상되는 다른 의견을 비판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ㄴ. 논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ㄷ. 사례를 들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ㄹ. 핵심 개념의 의미 규명을 통해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① ㄱ, 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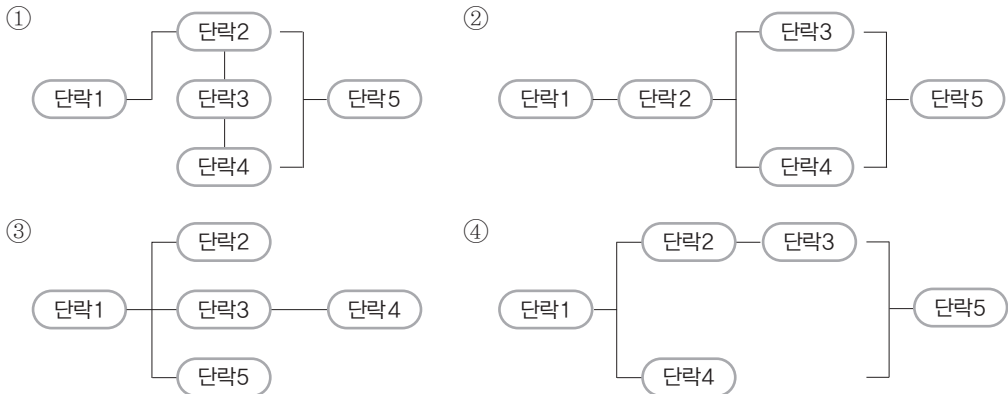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02 각 단락별 관계를 글 구조도로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락1 사람들은 언어로 무엇을 표현하는가? 언어의 내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관점에서 본다면, 그 하나는 이성 또는 지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서 또는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고 체계화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성과 지성의 언어이고, 인간의 감정이나 감각, 또는 서정적인 분위기나 정신적인 상태에 관하여 느끼고 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 정서와 감각의 언어이다. 이 두 요소는 우리의 언어적 성숙을 위하여 반드시 연마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에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를 모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요소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과 감성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대립의 개념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며, 두 요소 모두 인격과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 언어의 내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 있죠? 아마도 두 관점을 모두 소개할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열되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단락2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결국은 언어적 지성이다. 우리들의 사고와 개념은 언어적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어의 덕분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인간의 지성은 언어로 강제당한 지성이다. 우리들은 모국어로 이루어진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간다. 참으로 다양한 생각들이 물결치면서 흘러가고 밀려오는 현대는 과거에 한번 안 지식으로 몇 년을 사용하는 능력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해야 할 폭도 넓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남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느끼는 지성과 정서가 무엇인지도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지성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3 올바른 이성의 언어, 지성의 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가?(질문을 던지고 있으니**빠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주는 단정하다.”라고 했을 때, 동주는 모자를 비스듬히 쓰는 일도 없고, 교복의 단추를 비스듬히 다는 일도 없고, 양복바지의 무릎이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고, 신발은 언제나 깨끗했음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둘째는, 편협한 사고를 넓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반대의 경우나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고, 내 생각의 한계가 무엇일지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곧 현상을 따져보고 다시 물어보고 정리하고 비평하기,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깊고 넓게 사고하는 것이 지성적 언어 사용의 바탕이 된다.

☛ 지성 넘치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훈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 보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구나 하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둡니다.

단락4 바람직한 이성적인 사고는 그에 걸맞은 정서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이성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바람직한 정서가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고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정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객관적인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정서란 인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성장에 정서적인 환경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즉 아이들 교육에 정서 교육이 빠진다면, 그 아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뛰어난 판단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결함을 안게 될 것이다.

● 정서적 측면이 부가되어야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단락4부터 정서, 감각, 감성과 같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락5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는 그 경향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다시한 번 두 대상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성의 언어와 감성의 언어의 절묘한 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지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감성적 지성인의 모습을 꿈꾸게 된다. 이는 글로 쓸 때뿐만이 아니라,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편견, 선입견, 고정 관념 등이 없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하면서도, 따뜻함이 살아 있는 풍부한 감정 표현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목표이자 이상일 것이다.

● 단락1에서 말했던 내용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을 첫 단락의 내용을 심화하며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실제 시험이라면 이 내용들은 단락1에서 이미 한 번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 예제풀이 |

01 답은 ④입니다. ㄴ은 단락3에서 찾아볼 수 있고(‘예를 들어 “동주는 단정하다.”라고 했을 때’), ㄹ은 이 글 전반에 걸쳐 계속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핵심 개념의 의미 규명 →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결국은 언어적 지성이다.’ ○ 개념 간의 관계 → ‘그러나 지성과 감성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대립의 개념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며, 두 요소 모두 인격과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ㄱ과 같이 타인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ㄷ과 같은 통시적 고찰도 나오지 않습니다.

02 답은 ④입니다.



이 글은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기보다는 이러한 두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두 대상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01~0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락1〕 ㉠이제 사회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밖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압축 성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하게 전개된 국가 주도의 대외 의존적 산업화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급격하게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형태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막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사회 운동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운동은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운동’의 전개와 여성·환경 등을 쟁점으로 하는 ‘신(新)사회운동’의 출현이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다.

〔단락2〕 서구에서 경제적 관계를 중심적인 대립축으로 하는 구사회운동은 분배적 정의, 균형적 계급 관계,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등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참여하는 계급 타협과 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복지 국가의 출현에 의해 그 목표를 상당 정도 실현하였다. 그리고 구사회운동의 목표가 충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면서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 냉전과 군사주의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부각되었고, 이것의 해결을 겨냥한 신사회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은 경제적 관계 대신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대립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대,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의 특징을 보인다.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사회 성원들과 가치들을 동원하여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단락3〕 한국 사회에서는 구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 즉 구사회운동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제도화되어 계급 타협을 이끌어 내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전에 신사회운동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양한 부문들에서 사회 성원들을 탈계급적으로 동원하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 변혁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휘방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대립축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면서 사회 성원들의 이익 표현과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완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사회 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사회 성원의 기본권 확보 및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락4 그러므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의 기획’을 넘어서려는 탈근대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한계뿐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근대조차 완성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신·구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01

윗글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진술은?

- ①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배타적 관계에 있다.
- ②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완성과 극복을 함께 지향한다.
- ③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물질주의적 가치와 목표를 추구한다.
- ④ 한국의 사회 운동은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 ⑤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발생하였다.

02

단락1의 ㉠~㉣ 중 핵심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 문 독 해

단락1 이제 사회 운동은 기존의 사회 제도 밖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병리적 현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동 운동은 인간다운 삶의 실현에 기여하였으며, 여성 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운동의 공간과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압축 성장’으로 불릴 만큼 급속하게 전개된 국가 주도의 대외 의존적 산업화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을 급격하게 증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분출된 여러 형태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 체제의 막대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통제에 의해 억압되었다. 또한 사회 운동 공간이 협소했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 운동은 규모나 능력의 측면에서 그 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기에 한국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사회운동’의 전개와 여성·환경 등을 쟁점으로 하는 ‘신(新)사회운동’의 출현이 시기를 거의 같이하고 있다. (전반적인 내용에서 발전되어 한국에서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이 거의 그 출현시기를 같이한다는 말을 합니다.)

단락 2 서구에서 경제적 관계를 중심적인 대립축으로 하는 구사회운동은 분배적 정의, 균형적 계급 관계, 물질적 풍요와 인간다운 삶의 실현 등의 목표를 추구하였으며, 자본과 노동과 국가가 참여하는 계급 타협과 갈등의 제도화에 기초한 복지 국가의 출현에 의해 그 목표를 상당 정도 실현하였다. 그리고 구사회운동의 목표가 충족된 바로 그 지점에서 신사회운동이 발생하였다. 즉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면서 여성 차별, 소수자 차별, 경제 발전에 의한 환경 파괴, 냉전과 군사주의 등 새로운 갈등 요인이 부각되었고, 이것의 해결을 겨냥한 신사회운동이 성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사회운동은 경제적 관계 대신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대립축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연대, 탈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의 특징을 보인다. 이 점에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사회 성원들과 가치들을 동원하여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성찰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 앞에서 서구의 구사회운동을 설명하고, 신사회운동의 발생과 구사회운동의 한계 극복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사회운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이는 신사회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구사회운동을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락 3 한국 사회에서는 구사회운동이 그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 즉 구사회운동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제도화되어 계급 타협을 이끌어 내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전에 신사회운동이 함께 발전하였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다양한 부문들에서 사회 성원들을 탈계급적으로 동원하는 신사회운동에 대해 전체적인 사회 변혁에 필요한 힘을 분산시키고 약화시키는 민주화의 훼방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사회운동이 경제적 관계와는 다른 대립축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면서 사회 성원들의 이익 표현과 참여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구사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완결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두 운동을 배타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은 사회 성원의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한국의 신사회운동이 사회 성원의 기본권 확보 및 확대라는 목표를 추구하며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의 신사회운동을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는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단락 4 그러므로 서구의 신사회운동이 ‘근대의 기획’을 넘어서려는 탈근대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의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한계뿐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하겠다. 근대조차 완성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신·구사회운동은 산업화의 모순과 민주화의 장애를 극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 글쓴이는 ‘그러므로’ 이후 압축적으로 한국의 신사회운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전풀이

- 01 답 ㉔ 마지막 단락에서 글쓴이는 한국의 신사회운동을 ‘근대의 한계뿐만 아니라 전근대(前近代)의 질곡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선택지를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 02 답 ㉔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단락2에서부터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한 근거들이 길게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03~0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락1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과 국가는 구성원들의 올바른 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요 수혜자이어야 할 국민들은 거꾸로 국가를 위하여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주요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主權在民)은 아직도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

단락2 역사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 성장해 왔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그 열망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순조롭게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보화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단락3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 결정론적 입장에서,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공개와 분산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고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쌍방향 통신을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며, 지역 정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임을 강조한다.

단락4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재구성된다는 사회 구성론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적 불평등 체제와 중앙 집권적인 지배 구조가 존속하는 한 정보화의 잠재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돼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개방성이 큰 포합적 정보의 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배타적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능력에서 정보 약자와 정보 강자 간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힘의 차이와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는 지역적으로 재생산되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측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가의 권력 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동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배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결국 민주주의는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이들은 경고한다.

단락5 이들 두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되, ㉠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관론에 빠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기존의 비민주적 지배 권력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더욱 악용하려 들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여 시민 사회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03

전체 지문의 구조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은?

- ① 개념 규정 → 대상 분석 → 요약
- ② 화제 제시 → 상반된 주장의 대비 → 절충
- ③ 주장 제시 → 사례 소개 → 주장의 재확인
- ④ 통념 소개 → 통념의 문제점 비판 → 새 이론 제시
- ⑤ 자료 제시 → 자료의 일반적 의미 소개 → 독창적 해석

04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초고속 통신망 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한다.
- ②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자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 ③ 인터넷 상에서 꼭 실명을 사용해 글을 쓰도록 권장한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강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 ⑤ 위험한 일에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명 피해를 줄인다.

지 문 독 해

단락1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과 국가는 구성원들의 올바른 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현대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요 수혜자이어야 할 국민들은 거꾸로 국가를 위하여 복종과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소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주요 정치적 결정 과정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권 재민(主權在民)은 아직도 교과서의 한 구절로 남아 있다.

단락2 역사의 흐름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계속 성장해 왔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그 열망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조롭게 확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정보화의 전개와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 이 정도까지가 맥락을 제시하는 <화제 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 읽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단락1의 ‘사람은 정치적 동물’과 같은 원론적 논의는 크게 주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먼저 읽고 접근하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은 단순한 맥락 제시에 불과할 뿐 글쓴이의 핵심 논의와는 동떨어진 부분이라는 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문의 화제와 관련해서는 단락2가 중요한데, A를 쏙아 보자면 ‘민주주의’, ‘정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열거가 시작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락3 낙관론자들은, 기술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한다는 기술 결정론적 입장에서, 디지털 혁명은 정보의 공개와 분산을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고양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은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쌍방향 통신을 활성화하고, 각종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져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이며, 지역 정보화를 통해 지역 발전이 촉진될 것임을 강조한다.

단락4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기술적 잠재력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재구성된다는 사회 구성론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이 자본주의적 불평등 체제와 중앙 집권적인 지배 구조가 존속하는 한 정보화의 잠재력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돼 불평등의 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믿

는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고 개방성이 큰 포괄적 정보의 이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배타적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는 능력에서 정보 약자와 정보 강자 간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힘의 차이와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며, 사회 계층 간의 정보 격차는 지역적으로 재생산되어 중앙에 대한 지방의 예측화가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국가의 권력 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동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배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결국 민주주의는 나락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임을 이들은 경고한다.

- ❖ 읽지 않고도 <상반된 주장의 대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노골적으로 입장을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각각의 캐릭터만 잡아 놓습니다.

단락5 이들 두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되,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관론에 빠져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기존의 비민주적 지배 권력자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더욱 악용하려 들 것이며, 이에 대항하는 시민 운동은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여 시민 사회는 점차 무기력해지고 말 것이다.

- ❖ 이제 두 주장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풀이

- 03 답 ② 단락2까지는 정보화와 민주주의라는 화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단락3과 단락4에서 각각 낙관론과 비관론을 대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두 주장을 절충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04 답 ④ 해당 문장을 보면 이분법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적극적인 관점에서 정보화를 통하여 미래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되, (낙관론) ㉠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예고하고 있는 위협(비관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은 비관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관론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 단락4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단락4의 '국가의 권력 기구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동태를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배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면,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지 타인이 알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국민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파악하는 것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